

## 베트남을 다녀 오면서

대한산업안전협회 중앙회 안전기술국  
정현찬 부장

지난 4월 23일 우리 협회 이홍지 회장을 비롯해 총무부장과 필자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목적지인 베트남을 향해 출발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베트남의 국가기관인 노동보호원과 기술협력 조인과 현지 우리나라 기업 및 베트남 기업 등의 안전 실태를 파악하고 동남아의 시장 개척이라는 목적을 갖고 출발하였다.

비행시간 3시간만에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도착하였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제일 먼저 맞이한 것은 열대지방에서 느껴지는 고온다습한 기후였다.

순간적으로 “덥긴 덥구나” 하는 생각과 일정에 대한 걱정이 뇌리를 스친다. 먼저 숙소로 가기 위해 렌트카를 타고 숙소인 Futura Hotel로 향했다. 숙소로 가는 동안 우리의 눈앞에는 믿기지 않을 많은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무질서 그 자체라거나 할까. 좁은 편도 1차선 도로에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은 차선의 개념을 잊은채, 무질서의 강물처럼 흐름에 맞춰 흘러가고 있었다. 과연 이들에게 안전이란 어떤 의미로 존재할까 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다음날 우리 일행은 베트남의 노동보호원(우리나라의 노동부와 비슷한 기구)을 방문하여 “작업장 안전·보건 기술 요원의 상호 교환”, “생산활동을 위한 안전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의 수행”, “작

업장 안전·보건 관련 기술 정보·자료의 교환”, “작업장 안전·보건 관련 기타 사항”을 주요 골자로 상호협력 조인을 가졌다.

여기서 베트남의 안전관련 기구의 구조를 간략하게 소개가 필요할 것 같다. 베트남의 안전분야에 관한 조직으로 하노이에 소재한 노동연맹 및 과학, 기술, 환경부 산하 노동보호원(MLP)과 과학자문기관이 있고, 노동보호원의 하부조직으로 관리, 노동개발, 조직운영 관리, 노동감시부가 있다. 호치민과 다낭에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는 최소한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노동보호원은 우리의 노동사무소 규모로 5-6명 규모의 미미한 조직이 있다.

우리의 방문을 계기로 이들은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당장 실용 가능한 안전관련 정보를 얻기를 바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간 “KSA 안전표지 기준 ㉔”와 전업중에 걸친 “안전교육용 Presentation 자료”, “각종 기술서적”을 전했다.

전해 받은 이 곳 호치민 출장소장은 후일 우리가 준 ㉔를 밤새 꼼꼼히 살폈는데, 베트남 산업안전에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고마움을 전하는 것을 보고 뿌듯함이 느껴졌다. 이는 주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야릇한 쾌감일 것이다.

베트남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어,

이곳의 우리나라 기업은 안전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했다. 이와 비교하여 이곳 베트남의 기업들이 경영하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안전활동을 하고 있는가 보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는 베트남의 노동보호원의 협조를 받아 나이키 신발을 제조하는 한국 투자회사 삼양사와 오리온 전기를 방문했다. 두 회사 모두 이곳에 진출한지 10년이 된다고 한다.

우리 한국인이 경영하는 곳이라 그런지 국내 다른 현장과 다를 바가 없었다. 안전표지,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 안전에 관련된 제반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곳 현지에서도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호도가 높다고 한다.

다음은 노동 보호원의 소개로 “안전·환경관련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곳 기업을 방문했다. 수도꼭지를 생산하는 CMA와 제지공장이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60~70년대의 수준의 환경을 가지고 있음을 느꼈다. 대표적인 회사가 우리나라의 70년대 정도이니 베트남의 안전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장 어느 곳을 봐도 안전장치, 안전 관련 표지판, 문구를 찾아 볼 수 없었고,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 또한 없다고 한다. 대상을 받은 기업이면 안전의 기본인 정리 정돈이라도 했을 법한데, 어디 하나 청결한 곳이 없었다. 과연 무엇으로 대상을 수상했는지 의아심만 생기게 한다.

이것이 베트남 산업안전의 현 주소인가 싶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60~70년대 경제수준이나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기 위해 잠재력을 발휘하는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이밖에 산업안전과 거리는 있으나 고엽제라는 화학물질이 나온 충격적인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전쟁박물관

관에 전시해 둔 월남전 당시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로 인한 피해의 증거들이 바로 그것이다.

고엽제의 무차별한 살포에 대한 후유증으로 눈이 하나인 태아, 태어났으나 다리가 없고 팔이 1개 또는 4개인 사산아, 살이 썩고 팔·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사람의 사진과 실험관 속의 사람은 차마 눈을 뜨고는 보지 못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전쟁에 대한 후유증이지만 화학물질의 위험성이 얼마나 끔찍한지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이번 베트남 출장을 통해 아직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고, 환율 차이 등으로 가까운 기간내에 우리의 안전시장으로 활용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선다. 따라서 지금은 투자한다는 개념에서, 우리의 기초적인 안전기술을 제공하고, 대의로는 인간이면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조성하는데 기여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안전, 환경 등에 정부가 지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노력을 경주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KISA의 교육 프로그램, 사업장의 안전진단, 화학공정 등의 위험성 평가 등의 분야에 장기적인 안전시장으로써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